

2018 새해 새 설계

송중욱 광주은행장

“중국시장 안착...글로벌 금융영토 확장”

‘영업 제일주의’ 전략 성과  
수익·안전성 두토끼 잡아  
신인턴뱅크 이달중 오픈  
“100년 은행으로 새 출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고 밖으로는 브랜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도권은 물론 중국 금융시장에까지 금융영토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영업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역할과 미래 성장엔진으로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핀테크와 글로벌 분야 확대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다양한 비대면 상품을 개발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금융 채널 구축의 일환으로 신(新)인턴뱅크 오픈(1월중)을 준비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디지털금융의 기반을 마련해 지역간 경계가 없는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글로벌 분야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아, 지난 11월 22일 개소식을 열었다. 중국 무석사무소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및 신사업 연구개발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 소매금융 사업을 중국시장에 참가, 구현하기 위해 중국 지방은행 및 주요도시의 금융투자기업과 상호 협력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JB금융그룹이 이미 진출 완료한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영업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송 행장은 상생과 동행에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단순 봉사활동에서 직원들이 시간과 노력에 재능까지 기부하는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전국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인 제1회 광주화루를 개최해 유망 화가 발굴자원을 넘어 예향의 부활을 알렸다. 아울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민화전을 개최해 민화의 새로운 가치 찾기에 나선다. 서울전시는 올해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고 광주전은 11월중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전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지난해 12월 창단해 지역 체육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도 송 행장은 광주은행의 이익 추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송중욱 행장은 “지난 50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성원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민이 주인인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며 “무엇보다 지역 현안 사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486.35 (+6.70)
- ↑ 금리 (국고채 3년) 2.13% (+0.01)
- ↑ 코스닥 822.31 (+9.86)
- ↑ 환율 (USD) 1064.50원 (+3.30)

산은, 금호타이어 대책 TF 구성

M&A팀 추가 확대 개편...이달 중순 처리방안 나올 듯

금호타이어의 경영 정상화 방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테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조조정 및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의 처리방향을 결정할 조직을 기존 구조조정실의 한 개 팀에서 테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했다.

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달 3개팀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TF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기존 금호타이어 문제를 담당했던 구조조정팀에 인수·합병(M&A)팀, 대외협력팀이 추가됐다. 법무

조무팀을 지원할 변호사 2명도 파견됐다. 구조조정팀은 계속해서 금호타이어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M&A팀은 매각 관련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한다. 대외협력팀은 국회와 언론 등 대관·대인론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은행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TF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금호타이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

다. 중국 업체로 매각이 불발된 후 지난해 9월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가 금호타이어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 초안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고려할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에 TF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타이어 채권행사의 유예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이달 말로 1개월 연장했다.

TF에 M&A팀이 포함된 만큼 금호타이어 처리방안으로 채권단의 ‘수혈’로 연명하는 방안 외에 M&A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행사 유예기한이 이달 말인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은 이달 중순에 처리방안을 마련해 채권단 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향후 중요한 구조조정 업무를 TF 체제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TF는 새로운 시도”라며 “이번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절차를 매뉴얼화해 앞으로 활용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지난해 생산량 감소

경쟁 심화·해외시장 침체...1.3% 줄어 49만2233대

지난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량이 전년(2016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는 주요 수출시장인 북미 등 해외시장 경기침체와 업체간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통상임금 신고 영향 등으로 집약됐다고 분석된다.

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생산량은 49만2233대(내수 11만5496대·수출 37만6737)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49만8680대(내수 11만3960대·수출 38만4720)와 비교해 1.3%(6447대) 줄어 들었다.

생산량은 내수는 1.3% 늘어난 반면 수출은 2.1% 감소했다.

차종별 생산량은 ‘쏘울’이 16만5508대(내수 2995대·수출 16만2513)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스포티지는 20만11003대(내수 4만4003대·수출 15만7097)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봉고트럭은 9만7387대(내수 6만2642·

수출 3만4745)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올 뉴 카렌스는 2만4652대(내수 2965대·수출 2만1687)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반면 대형버스 그랜버드와 군수차량 등 기타 차종은 3586대(내수 2891대·수출695)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지난해 생산 목표량은 49만대로 목표량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명차 스포티지와 쏘울을 혼류 생산 중인 광주 2공장은 지난 1992년 문을 연 이래 25년 만인 지난해 3월 누적생산량 300만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올해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판매목표인 287만5000대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공장은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은행 대출연체율 0.01%p↑...가계·기업 동반 상승

두 달째 상승...연체채권 잔액 3천억 늘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올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0.49%로 집계됐다.

10월 말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두 달째 상승한 것이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두 달 상승하고 분기 말에 하락하는 계절적 경향을 보여 왔다.

다만 2016년 11월에 연체율이 0.17%포인트 하락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금감원은 “11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원 늘었지만,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2000억원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7조4000억원으로 10월 말보다 3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02%포인트 상승한 0.67%, 가계대출 연체율이 0.01%포인트 상승한 0.28%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이 0.01%포인트 오른 0.43%, 중소기업이 0.03%포인트 오른 0.74%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이 0.19%로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신용대출 등 이를 제외한 대출이 0.01%포인트 오른 0.47%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은 대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달 주식거래 늘고 대금 줄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거래대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4억4762만주에서 4억5685만주로 923만주(2.06%)가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4조5584억원에서 3조5847억원으로 9737억원(21.36%) 줄어 들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대비 거래량은 1.74%, 거래대금은 1.45%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금호타이어, 주연테크, 우리들휴브레인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금호타이어 순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KD건설, SBI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신라젠, 텔론,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